

【신 시민회관을 문화 창출, 발신지로】

안녕하십니까.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현재 센니치마에 지역에 정비 예정인 새로운 문화 예술 시설(신 시민회관)은 지금까지의 대관 스타일에 머무르지 않는 오카야마 고유의 문화 예술을 창조하고, 국내외의 발신해 나가는 창조형 극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 시민회관의 관리운영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한 검토 간담회가 개최되어 다양한 입장의 전문가들로부터 유익한 제안을 받은 것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 앞으로는 AI (인공지능)의 발달 등으로 산업 구조가 크게 변화해 나간다. 미래에 남아있는 일과 새롭게 생기는 일은 독창적인 것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 창조적인 예술의 중요성이 한층 증가 될 것이다.

• 무대 예술이 갖은 의미는 ①작품을 만들어 공연하는 것과 ②미래의 도시 만들기를 담당하는 아이들에게 창조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일이다. 그 유무가 가져다 주는 지역 격차는 10년 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문화를 키우는 것이 문화가 가지는 큰 힘. 오카야마에 그런 거점이 있다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

• 좋은 극장은 의사를 자기고 생각하는 힘이 갖춰져 지역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의 접점이 되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좋은 의견으로서 제 자신도 토론에 참가하여 향후 전개에 이미지가 생겨나고 즐거움이 더함과 동시에 앞으로 4년 반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신 시민회관이 문화창조, 발신지역으로서 오카야마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시설이 되도록 든든한 방향성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